



머리글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삼복(三福)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님과 회원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복(三伏 - 초복, 중복, 말복) 기간의 몹시 심한 더위를 삼복더위 혹은 삼복염천(三伏炎天)이라 합니다. 화(火)가 두 개나 겹친 염(炎)자는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한자를 보면 불이 여기저기 불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에 삼복더위를 불꽃같이 더운 날씨가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초복(初伏; 7월 12일)이 오려면 며칠이나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 땀이 차고, 숨을 헐떡이니 이번 여름 보내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게 느껴집니다. 보통 삼복(三伏)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바다나 산간 계곡을 찾아 피서(避暑)를 가거나, 보양식을 먹습니다. 이번 여름을 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저는 이번 한 달 교정시설을 열심히 다니고 나서, 다음 달부터는 '방콕'하려고 합니다. '방에 콕 박혀서' 시원한 선풍기 밑에 앉아 그동안 잊혀온 여유를 즐기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정 속에 지친 제 신심을 달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여유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후 군중들을 돌려보내신 뒤,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마태 14,13-23 참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역시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루카 5,12-16 참조). 이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하신 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휴~ 피곤하네.' 하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복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시기이지만, 그동안 일상의 바쁨 속에서 잊고 살아온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여유 시간 또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이번 삼복더위는 새로운 '삼복(三福)더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지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이 더위의 시간이 우리에게 첫째 복(福)이요, 성자 예수님의 기도 모범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둘째 복(福)이며, 협조자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일치시켜 주시기에 셋째 복(福)입니다.

이번 여름 삼복(三伏)더위가 물러가고, 후원회원 모두에게 삼복(三福)이 내리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5월 20일(월)~24일(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5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지케이스너 이보라 강사는 '공감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성향진단과 행복한 자기 경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고, 편견 없이 대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좀 더 좋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힘을 키워내길 바랍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6월 3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와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김도훈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가족의 안녕과 평화가 오는 거지?'라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 신앙의 세속화가 교회 문화 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성심을 내 안에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냈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달, 사랑이 가득한 예수성심의 뜨거운 마음을 본받아 기도로써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총회



6월 8일(토)~9일(일) 각 교구 교정시설 종사자와 가족 등이 함께 모인 가운데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이하 한교협) 성심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교협 3대 회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의 주례와 전국 교정사목 담당 사제들의 공동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더불어, 친교 나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교도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전문희 데레사_서울동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찬미 예수님!

어느 날 제가 집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 무엇을 하고 왔다고 말하지?’

생각해 보니 긴 인생에서 주님께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던 찰나, 교정사목에 계시던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악기 봉사자가 없는데, 봉사해 줄 수 있나요?’

평소 같았으면 바빠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결심한 바가 있어서 흔쾌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전작업을 하셨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봉사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 준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신 주님과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 봉사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야 곱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발뒤꿈치’라는 의미를 지니는 히브리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발뒤꿈치’라는 뜻 말고 ‘남의 자리를 뺏다’, ‘기만하다’라는 뜻만 봐도 야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두 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창세 27,34)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야곱의 일생은 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시비를 건 것에 앞서, 이미 레베카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사우는 다투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은 대체로 야곱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에사우에게 굳이 장자권을 팔라고 흥정하질 않나, 어머니와 짜고 늙은 아버지 이사악에게 사기를 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챍니다. 형에게 나쁜 동생이었고 아버지에게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잔꾀를 굴려 장자권과 축복을 얻었던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이번에는 잔꾀를 부려 야곱을 속입니다.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신부로 주겠다고 칠 년간 부려먹더니, 첫째 딸 레아를 주고는 칠 년간 더 일 하라고 요구합니다(창세 29.15-30). 사기를 치던 사기범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당했건만, 자기중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상처를 받고, 그렇게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과의 분쟁, 아버지와의 분쟁, 게다가 아내 둘과의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늘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또 다르게 바라보면 야곱은 일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기준, 혹은 사회나 관습이 만들어 낸 규정과 틀에 갇혀 있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그건 할 수 없지라며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늦게 태어났으니깐,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에게 가는 거니깐, 하느님의 축복은 하느님과 아버지에게 달려있으니깐,

작은딸이 먼저 시집갈 수 없는 게 풍습이니깐, 하는 수 없다며 포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길을 걷습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 축복마저 흠뻑건만,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축복을 거머쥐자마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노숙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제껏 하느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던 야곱은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창세28,16)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창세 30,2). 그리고는 하느님과 겨룹니다.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창세 32,27)

일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경쟁하면서 태어나 동생이라는 바꿀 수 없는 지위마저도 바꾸려고 하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한 속임수에 당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재산을 불리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운명과 싸웠습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운명과 겨루어 온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남의 발뒤꿈치 잡아 태클을 거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겨루는 이, 하느님과 겨루는 이입니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창세 32,29)

놀랍지 않나요? 하느님의 축복을 빼앗긴 에사오, 하느님의 축복을 흠친 야곱, 두 사람의 결론이 같네요. 성서는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혹은 하느님의 뜻이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개척하고 하느님과 겨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된 게 남 탓, 부모 탓, 운명 탓이라 생각하시나요?



함께 바라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면서 모두가 함께한다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9기 대출자 남OO(OOO 토릭스 대표)

IMF 한파 속에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결국 폐업을 하면서 채권을 갚지 못해 사기죄라는 명목으로 2년 6개월이라는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이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손해를 끼쳐 고통의 연속에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한 쓰디쓴 고배를 마시고 2018년 3월 출소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현실은 더욱더 참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또한 힘든 생활을 하루하루 견디며 제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새로이 무엇을 도전한다는 자체가 제겐 너무 크나큰 삶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출소하자마자 생산직 야간공장에서부터 일용직까지 막노동할 것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밥값을 얻자고 노력하였으나 현실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활(허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조금씩 희망이라는 싹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 자신이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배송직을 해서 성공했었기에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형면허와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곧바로 택배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체력관리를 잘한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해오던 중 저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거 지원에 당첨되어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10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살게 되어 안락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가정이 안정되자 배송 일을 더욱 늘려 새벽 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에서 희망이란 씨앗의 싹을 피워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됨을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생활하던 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은행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뿔 뜻이 기뻐했습니다. 어디 가서 10원 한 푼 빌릴 수 없는 저에게 2,000만 원이라는 창업자금은 그 무엇보다 크나큰 값진 금액이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창업교육을 받으며 밤에는 낮에 못 했던 택배 일을 병행하며 무사히 창업교육을 수료하고 1차 면접심사와 2차 최종심사 합격을 하여 꿈에 그리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하는 크진 않지만, 제겐 큰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택배 일을 저녁에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생활하였습니다. 이듬해 8월경 저는 마트 본부장에게 또다시 단결음에 진보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매장을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직접 고객의 집에 찾아가는 배송서비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우체국 택배를 그만두고 마트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6개월 동안에 업무를 숙련하고 이를 토대로 물류 운송회사를 설립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틈틈이 모아서 차량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30여 대로 마트 하도급과 꽃 배달 회원 차량을 운영하는 어엿한 회사에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여 저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저와 같은 수용 생활을 하고 출소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우리 회사가 일선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마트 및 꽃 도매시장에 취업을 연계하여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의 취업 준비를 하는 저 같은 시니어(50~65세) 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알선해주어 하루하루를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도록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한 발씩 열심히 내디디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작은 희망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오고 있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은행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흡하였으나 그 끝은 함께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회사의 사훈입니다.

[함께] 바라고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함께]한다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8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 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행사 알림

- 7월 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7월 6일(토)~7일(일) 왕십리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왕십리성당
- 7월 13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7월 각 교정시설 세례식 및 방학식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